

## 2023 계묘년 태사묘 춘향대제 봉행



안동태사묘관리위원회(위원장 권정창)가 주관하는 '2023 계묘년(癸卯年) 태사묘(太師廟) 춘향대제(春享大祭)'가 3월 10일(음력 2월 19일 中丁日) 오전 10시 안동시 태사길(복문동) 태사묘우(太師廟宇)에서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 등 삼성(三姓)의 참제원(參祭員)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奉行)하였다.

최근 안동지방에는 때 이른 고온현상이 계속되어 춥지도 덥지도 않아 춘향대제를 봉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으나 가뭄이 계속되는 바람에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

이날 권기창 안동시장이 안동권씨 정조공파 종원으로 초현관을 맡아 권순복(權純福) 정조공파 종원과 함께 춘향대제를 봉행하는데 큰 불편이 없었으나 가뭄이 계속되는 바람에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 가고 있다.

참제원 분정(分定)은 태사묘 숭보당(崇報堂)에서 권기창(權基昌), 한학자(韓學者)가 담당하여 현관(獻官)과 제관(祭官), 참제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시간에 걸쳐서 분정례(分定禮)를 마쳤다. 분정은 초현관 권기창(權基昌), 아현관 권정창(權正昌), 종현관 장상섭(張尚燮), 집례 김정동(金定東), 축관 김용한(金龍漢), 권순복(權純福), 장의한(張義漢)이 각각 담당하여 1시간 30분에 걸쳐서 흐트러짐 없이 엄숙하게 춘향대제를 봉행하였다. 현관, 축관, 제례원, 참제원 모두는 관복(冠服)과 도포(道袍)로 갈아입고 향사(享祀)를 봉행하였으며 봉행이 끝나자 숭보당 앞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촬영을 하고 나서 숭보당에서 음복례를 하였다.

음복례가 끝나자 김두선 사무국장의 사회로 숭보당에서 '2023년도 태사묘대당회(大祭)'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도유사(都有司) 인사, 위원장 인사, 경과 및 감사보고, 자산보고, 2022년도 결산보고, 2023년도 예산안, 기타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초현관을 맡았던 권기창(안동시장) 도

유사는 인사를 통해 "삼성(三姓)은 안동의 주인이며 일치단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태사묘 일대를 성역화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 중에 있으며 외래 관광객이 찾아와서 변화된 안동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정창 대사묘 관리위원장은 "오늘 태사묘 춘향제에 참제원이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장우진 감사의 감사보고, 김두선 사무국장은 작년 2월 3일 태사묘 정갈례(正闋禮)를 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21건의 경과보고와 2022년도 결산보고를 한 후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 밖에 김두선 국장은 오늘 참석자 전원에게 점심 값으로 1인당 1만5천원을 지급하였는데 올 가을 춘향제 때는 코로나가 사라지면 세 문종이 담소를 즐기면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당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짹을 지어 식당으로 갔으며 안동권씨 참석자들은 권오신(權子信) 총무부회장과 함께 춘향제에 대한 토의와 의논을 한 뒤 막을 내렸다.

권영건 보도부장

## 재부산 감정공종친회 정기총회 개최



재부 감정공종친회(회장 권정수)는 지난 3월 21일 저녁, 전포동 부산종친회관에서 제55차 정기총회를 열었다. 이날 총회는 코로나19로 4년 만에 부산 거주 감정공(16세 기후 집덕)의 후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채영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총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태사공 시조님께 망배를 올린 뒤 참석인사 소개와 회장 인사, 축사, 격려사 순으로 이어졌다. 소개는 개인인의 자기소개로 진행되었다.

해광(정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로 모임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앞으로 새로운 자세로 보다 활기 있고 힘차게 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송암(성용) 종친회장과 송계(길상) 고문도 모처럼의 정기총회를 축하하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회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 운산(중원) 명예회장은 부산종친회의 모태가 된 재부 감정공종친회 위상과 내력에 대하여 회고하고, 전 회원이 감정공종친회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긍지를 갖고 더 열성적인 참여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역설했다. 이어진 총회는 총무의 경과보고와 송산(영현) 감사의 감사 보고 및 몇몇 현안에 대한 토의와 의논을 한 뒤 막을 내렸다.

권문의 16세인 감정공(季) 집덕(子德) 선조께서는 고려조에서 정3품 군기감정을 지내다 여조(麗朝) 교체기에 합천 쳐가 곳으로 온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맨 처음 서부 경남에 터 잡은 분으로 이 일대에 거주하는 안동 권문 대부분은 이 분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권채영 부산종친회 사무국장

## 안동권씨 정조공파 정기총회 개최



정조공파(회장 권순복)에서는 지난 3월 19일 파종회 회관 4층 회의실에서 종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성대하게 개최하였다. 오전 11시 권오길 총무부장의 사회로 국기에 대한 경례, 시조묘소 망배, 상을 순으로 진행되었다. 권순복 회장은 인사말에서 몇 년 전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하여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야기된 금리 인상,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며 문종의 기상으로 이어 내자고 격려하며 더불어 정조공과 명첩을 처음 발간하였으나 이쉬운 점은 보강하겠으며, 명첩이 정조공과 알립팅이 되어 더욱 돈목화합하는 바탕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또한 해마다 실시하는 경로잔치와 장학금 지급과 더불어 최근 저출산이 심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는 만큼 종원 누구나 결혼을 하여 출생신고를 하게 되면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안을 제안하면서 정조공과 족친 모두 봄날의 기운을 받으시어 새로운 도전과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고 인사를 마무리하였다.

이어 전년도 세입, 세출 결산과 예산을 슬기롭게 통과하고 출산장려금도 전원 찬성하였으며 23년부터 시행함을 결론짓고 권순복 회장님의 사비로 옥류관 식당에서 종원들에게 갈비탕을 대접하고 총회를 마무리했다.

권오길 총무부장

## 추밀공파 정현공계 오현공 종중 제50차 정기총회



추밀공파 정현공계 오현공 종중 제50차 정기총회는 3월 4일 11시 시흥 종중사무실에서 회원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권길행 사무국장의 사회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초현관을 맡았던 권기창(안동시장) 도유사는 인사를 통해 "삼성(三姓)은 안동의 주인이며 일치단결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현재 태사묘 일대를 성역화하기 위하여 주변 환경을 정비 중에 있으며 외래 관광객이 찾아와서 변화된 안동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정창 대사묘 관리위원장은 "오늘 태사묘 춘향제에 참제원이 많이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장우진 감사의 감사보고, 김두선 사무국장은 작년 2월 3일 태사묘 정갈례(正闋禮)를 하는 등 작년 한 해 동안 일어난 21건의 경과보고와 2022년도 결산보고를 한 후 2023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 밖에 김두선 국장은 오늘 참석자 전원에게 점심 값으로 1인당 1만5천원을 지급하였는데 올 가을 춘향제 때는 코로나가 사라지면 세 문종이 담소를 즐기면서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당회의를 마친 참석자들은 삼삼오오 짹을 지어 식당으로 갔으며 안동권씨 참석자들은 권오신(權子信) 총무부회장과 함께 춘향제에 대한 토의와 의논을 한 뒤 막을 내렸다.

권영건 보도부장

도승지 증시증(增時證) 휘 종손宗孫의 6섯째 아들로 공이 1477년(성종8) 정유에 양주의 옛집에서 출생하였다.

야관弱冠에 한훤당寒暄堂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성리학性理學을 수학하였는데 경학經學 이 일세에 타월하였다. 1507년(중종2) 정묘丁卯에 공 31세 때에 훗날 우상右相(우의정)에 오른 안당安塘이 공을 경학經學과 덕행德行으로 친거하여 금오랑金吾郎이 되었다. 이듬해인 1508년(중종3)에 통훈대부通訓大夫(정3품)로 품계가 오르고 사헌부 감찰司憲府監察에 제수 되었다. 이 때 김안로金安老가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 나라를 그르치고 있는 상황을 논고論告하는 상소를 올렸는데 삼사三司의 배척으로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을 외직인 흥원군수洪原郡守(한경남도 변방)로 제수하니 공이 병을 이유로 사직서를 올리고 부임하지 않았다. 조선 중종14년(1519) 기묘사화己卯士禍가 일어나자 형兄인 장령掌令(사헌부정4품) 극효克孝와 함께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를 구명하다 김안로金安老의 술책으로 공의 관직을 사탈 당하였다. 이에 공은 남양南陽(수원 서쪽 화성군에 있는 지명)에 은둔하시며 고기잡고 멧나무하고 상양徜徉(어수거리 노닐)하시며 일체 남들과 만나지 않고 살았다.

이후 공의 품계를 회복시켜 서용敍用하였으나 공이 고상高尚한 지조志操로 벼슬에 나가지 않으시고 우거寓居를 연성蓮城(현재 경기도 안산시의 옛 지명)의 초지로 이전하여 봄을 숨기고 살았다. 공은 자손에게 육잠六箴(효친孝親, 충군忠君, 목

족睦族, 신우信友, 원리욕遠利欲, 근인의近仁義)의 훈계를 남겼다.

첫째는 부모에게 효도하고(孝親)

둘째는 임금에게 충성하고(忠君)

셋째는 일가·친척끼니 화목하고(睦族)

넷째는 믿음으로 벗을 사귀고(信友)

다섯째는 사리사욕을 멀리할 것이며(遠利欲)

여섯째는 어질고 의로운 일에 가까이 하라(近仁義)

성리학性理學을 정구精究하여 문집文集을 남겼으나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유실되어 전함이 없다. (저서 오현집梧軒集)

후손

두일杜逸마을은 후손後孫들이 450년 전부터 출곧 안동권씨 추밀공파 오현공종중安東權氏樞密公派梧軒公宗中 족친族親들의 집성촌集成村으로 삼면三面이 산山으로 형성되어 바람을 막아주고 주택은 남향南向 양지陽地에 있어 겨울이면 햇빛이 잘 들어 따스하고 마을 주민들은 성품性品이 온화溫化하고 주민들간의 소통疏通이 잘 되는 마을이다.

두일杜逸은 선조先祖들이 지어준 마을의 지명이고 100여 가구가 가족같이 살고 있었으며, 현재는 후손들이 번성하여 2천여명의 족친族親들이 사회를 회복시켜 서용敍用하였으나, 회복시켜 서용하였고 고기잡고 멧나무하고 상양徜徉(어수거리 노닐)하시며 일체 남들과 만나지 않고 살았다.

이후

공의 품계를 회복시켜 서용敍用하였으나

공이

고상

한

지조

지정

지정